

[TV]

TV 1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종철 "팬들 반응 뜨거워 힘든줄 몰라요"

KBS '개콘'의 '마백이 코너'로 인기폭발...방송 2주만에 검색어 1위

앞 이마를 흰하 드러낸 정종철이 웃음을 머금고 이마와 부름을 두드리며 등장한다. 눈을 내리간 채 빠른 손놀림을 계속한다. 별다른 대사도 없다. 계속되는 '노동'에 지켜 가는 정종철은 혀혀하며 "이게 재미있어 보이냐" "박수치지 마라. 공연 길어지거나 "우리 코너는 말이어~ 이게 다어"라고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

이런 가운데 '마백이'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등장한다. 한편 정종철은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진다. 함어 부처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에는 무대에 주저앉고 만다. 그러면서 외친다. "이를 부르지 말고 빨리빨리 해" "아~ 아~ 힘들어."

이처럼 활자로 옮겨지면 쉽게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런데 눈과 귀로 이들의 공연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정종철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콘서트' 공연장에서 관객이 '앙코르'를 외쳤다"고 말했다.

불과 방송 2주밖에 안된 KBS 2TV '개콘서트'의 코너 '마백이'가 온라인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는 등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마백이'지만 불과 한 달 전에는 방송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다.

'마백이'의 인기를 두고 일부에서는 공개 코미디에 밀렸던 슬랩스틱 코미디(slapstick comedy)가 부활했다는 평가도 한다. 하지만 '마백이'는 1970~80년대 배삼룡, 심형래 등이 맞고 때리며 웃음을 자아냈던 코미디와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마백이'의 출연자인 정종철, 박준형, 김시덕, 김대배 등은 미리 대사를 정하지 않는다. 때리고 부딪히는 상황을 정교하게 짜던 심형래식 코미디와의 차이점이다.

"대본이 없어요. 나갈 때마다 대사가 달라지죠.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함한 큰 틀을 정한 후 대본 없이 무대에 올라요. 이미 4년 넘게 공연 무대에서 검증된 거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순발력과 노하우는 강합니다." 그만큼 이 코너는 즉흥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상황을 짜내거나 대본을 미리 정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다음 주라도 미련없이 코너를 내리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한국인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 일대기

평화방송 3부작 드라마 '성(聖) 김대건' 14~16일 방송

평화방송(PBC)이 오는 14일 한국인 최초로 그려졌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제인 김대건(1821~1846) 신부를 다룬 특별기획 드라마 '성 김대건'을 방송한다.

인물로 그려졌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간 김대건'을 집중 조명했다. 김대건을 사랑하는 여인 '가을'을 비롯, 생명을 위협하는 연적, 사제의 운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동료 등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드라마적 긴장감을 높인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with text: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062) 227-9940

케이블·위성TV 12월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program schedules.

PBC 광주평화방송 FM 99.9 MHz / FM 99.5 MHz (수화-나)

TBN 교통방송 (수화-나) B8 nW VY hk BE P *2B)+: cy

BBS 불교방송 (수화-나) 오후 8:30 빛과 아침 5:00 호남권 뉴스